

순천정원박람회 '찰스 3세 국왕 정원', 포토존 인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개장 한 달여, 관람객 300만 명 입장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에 맞춘 '찰스 3세 국왕 정원'이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순천정원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조

대관식 맞춰 영국정원→국왕정원 이름 변경

조직위, 주한 영국대사관 통해 '왕실' 협조 허가

성된 '영국정원'이 최근 '찰스 3세 국왕 정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조직위가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영국 왕실의 협조를 구한 결과, 찰스 3세 국왕의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허가받아 '찰스 3세 국왕 정원'으로 불릴 수 있게 됐다. 또 정원 입구에 세워진 찰스 3세 국왕 부부의 등신대는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인기 있는 포토존으로 떠올랐다. 작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이후 대관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왕에 즉위하는 찰스 3세는 평소에도 정원을 사랑하고 가꾸기를 즐기는 '가드너'로 알려졌다. 실제로 영국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는 말을 "손질할 정원 한 뼘 없이 사는 처지"라고 표현할 만큼 정원에 애정이 깊기로 유명하다. 순천만국가정원에 위치한 찰스 3세 국왕 정원은 빅토리아 시대 폴리팜가든을 모티브로 조성했던 정원에 장미 터널을 더해 더욱 영국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했으며, 장미가 개화하는 5월 중순부터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지난 4월 1일 개장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35일 만에 270만 관람객을 맞이하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 행사는 10월 31일까지 개최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지적·재조사 분야 우수연구과제 발표 '대상' 수상

여수시가 지난 4일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3년 지적·재조사 분야 세미나'에서 우수연구과제 발표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적·재조사 분야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별 다양한 우수사례 발표와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전남도는 전남 22개 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한 연구과제 예비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로 지자체 10편과 한국국토정보공사 5편을 선정했다. 이날 우수과제 발표에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로 최종 입상자를 결정했으며 여수시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수시는 '스마트 지적체계 구축을 위한 증강현실 기술 활용방안'과 지적재조사를 통한 공실시장 주민 숙원 해결인 '시장(市場)을 시민에게'를 발표해 심사위원회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김현근 기자

고흥 작은섬 무인화 막는다...사업비 28억 원 확보

4개지구 작은섬 공도 방지 사업 선정...국비 19.6억 지원

고흥군의 작은섬의 무인화를 막기 위해 국비 등 총 28억 원이 투입된다. 고흥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에 대유대도 등 4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19억 60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무인화 위기에 처한 작은 섬의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읍면 수요조사를 거쳐 행

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3월 사업신청 대상지 현장확인 등 심사를 거쳐 올해 사업 대상지로 4개 유인도가 확정됐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 지구는 ▲영남면 대유대도 ▲봉래면 수락도 ▲괴역면 진지내도 ▲포두면 침도 등이다. 군은 사업비를 투입해 관정 개발, 부잔교 설치, 방파제 연장, 도로 정비 등 주민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작은 섬 공도 방지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접안시설, 생활용수 부족 등

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의 지난 4월 인구는 6만 1618명으로 3월 6만 1615명에 비해 3명 늘었다. 군은 고흥군 인구가 몇명이나 증가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귀농귀촌인 등 전입 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61명 늘어난 것이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세계차엑스포 수출상담회 통해 700만 불 협약 체결



작년 310만 불 대비 2배 이상 증가

보성군이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 동안 열린 '찾아가는 품평·수출 상담회'를 통해 700만 불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310만 불 규모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번 수출 상담회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으며, 관내 23개 농특산물 생산 가공 업체가 참가했다. 3일 열린 품평상담회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와 연계한 찾아가는 품평 상담회는 차(茶)를 포함한 관내 23개 농특산물 생산·가공업체가 참가했다. 총 9개 사 17명의 국내 및 중국 MD와 총 97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국내 대형 유

통사 입점 결정 26건, 적극 검토 42건, 고도화 후 입점 검토 16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4일 열린 수출상담회는 관내 18개 농특산물 생산·가공업체와 국내외의 11개국 17개 사 23명의 바이어가 참가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보성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중국 4개국에 선보이게 됐다. 또한, 프랑스(탈리우스), 미국(에이스 인터스트리, 굿모닝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라벨) 등 6개 사가 보성 차를 비롯한 녹차 코팅장갑, 녹차음료, 잡곡, 울버 샬 제품 등의 농·특산 가공품 수입을 위해 강산농원, 다도락, 보성농협 등 9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해외 한인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현지 로컬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제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광양시, 광영공공하수처리장 최종방류수 수질 보전 노력

광양시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방류되는 하수처리수 법적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광양만권 수질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광영공공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정밀세정과 여과 분리막을 교체하여 최종방류수의 수질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최종방류수는 수질자동측정기(T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송돼 법적 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적 수질기준으로는 총질소(T-N) 20 이하, 총인(T-P) 2 이하 부유물(SS) 10 이하로 처리돼야 한다. 현재 광영공공하수처리장은 이러한 법적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해마다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물반응조 내 여과분리막 16,800매를 정밀 세정하고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여과분리막 750매를 교체하는 등 안정적인 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진호 하수처리과장은 "매년 예산을 투입해 생활하수처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오는 5월 말까지 노후 펌프 7대를 교체 하는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수처리로 광양만권 수질보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